

### 911대원이 직장을 잃은 사연

조울증을 앓고 있던 한 여성 때문에 평생 다니던 일터를 잃은 남성의 사연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지난달 25일 영국 일간 메트로는 병 때문에 응급구조대원 남성 트레버 피너티(Trevor Finnerty, 61, 사진)를 유혹한 어느 여성을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영국 워릭셔주 배드워스 (Bedworth, Warwickshire)에 사는 익명의 한 여성은 지난해 1월, 자신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으며 지금 '자살'을 생각할 만큼 심각한 상태라면서 도와달라고 911에 응급신고 전화를 했다.

전화를 받고 급히 출동한 응급 구조대 소속 남성 트레버는 여성의 집에 도착한 순간 이상한 조짐을 느꼈다. 자살을 생각하던 여성이 너무도 밝게 미소를 지으며 맞이하며 자신의 방으로 들어오라고 말했다. 트레버가 거절하자 여성은 갑자기 돌변했다. 트레버는 "여성이 '당장 들어오지 않는다면 당신이 나와 성관계를 했다고 당신 상사에게 말하겠다'고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트레버와 여성은 성관계를 가졌고, 그 사실이 상사의 귀에 들어가면서 구조대원 경력만 30년이었던 트레버는 직장에서 해고됐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트레버를 유혹한 여성은 일명 '조울증'이라고 불리는 양극성 장애를 앓고 있었다. 양극 성장애란 기분이 좋은 조증과 우울한 기분이 드는 울증이 번갈아가며 나타나는 정신적 질병이다. 조증 시기에는 비정상적인 흥분, 고양, 불안, 불면, 과대망상들을 겪고 울증 시기에는 우울감, 무기력증을 느낀다.

이에 여성은 병 때문에 울증 상태일 때 자살을 생각했고 구조대원인 트레버가 도착하자 반대로 조증을 조절하지 못하고 성관계를 요구했던 것이다. 트레버는 그런 병이 있는 여성 앞에서 순간적으로 유혹에 빠졌다가 평생을 바친 일터를 잃고 말았다.

### 생명의 은인에서 연인으로

패들보드(보드 위에 서서 노로 저어서하는 서핑) 도중 심장마비로 쓰러진 남성과 그를 구해낸 여성 사이에 짝사랑이 화제이다.

지난달 27일 '인사이드에디션'에 따르면 평소 패들보드를 즐기던 맥스(왼쪽)는 패들보드 행사를 앞두고, 뉴욕시민들에게 함께 훈련을 하자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렸다. 그의 초대에 앤디(오른쪽)도 훈련에 참여했다.

그런데 한참 훈련을 하던 맥스가 갑자기 쓰러졌다. 사람들이 그를 구하러 달려왔지만 그의 심장은 이미 멈춘 상태였다. 다급한 위기의 순간에 의사인 앤디가 심폐소생술(CPR)을 시작했다. 앤디는 즉시 거의 20분 동안 인공호흡을 실시했고, 맥스의 심장 박동을 다시 정상화시키기 위해 제세동기(AED)로 6차례 전기 충격을 가했다.

맥스는 "그 전날 밤에 10.4마일을 달린 게 무리였는지, 내가 심장마비에 걸릴 줄은 생각도 못했다."면서 "그녀



덕분에 살았다."고 끔찍했던 순간을 회상했다.

이를 계기로 두 사람은 연인 사이로 발전했고, 현재 CPR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에 앞장서고 있다

맥스는 "살아남아서 그녀와 더 많은 키스를 할 수 있게 되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 "사람들에게 CPR, AED 사용법 등을 가르쳐 우리에게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다."고 말했다.

### '포옹'해주며 돈 버는 여성



호주 퀸즐랜드에 거주하는 제시카(왼쪽)는 20살 때부터 마사지사 겸 상담사로 일해 왔다.

직업 특성상 다양한 고객과 마주치던 제시카는 외로움에 지친 수많은 사람의 사정을 알게 됐다. 제시카를 찾아온 사람들은 마사지와 상담을 받으며 잠시간 안정을 찾았지만, 정작 큰 위로를 얻지는 못했다.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에 제시카는 자신이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기 시작했고 마침내 6년 전에 우연히 들은 '포옹 치료'를 떠올렸다. 사람들은 보통 누군가와 포옹을 하게 되면 세로토닌 호르몬이 증가돼 행복한 기분을 느끼고, 스트레스가 완화된다.

실제 '껴안아 주는 사람'을 뜻하는 커들러(Cuddler)라는 직업은 낮은 사람과 포옹을 하며 사람들의 아픔을 치유한다. 제시카는 자신도 본격적으로 커들러 일을 하기로 결심했다. 제시카는 자신을 찾는 고객들을 품에 꼭 껴안아 주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줬다.

치료는 시간당 기본 80달러, 전문적인 상담이 추가되면 110달러. 하지만 제시카를 찾는 사람들의 발길은 끊이지 않았다. 처음에는 35세 이상의 남성들이 주로 찾았는데, 점점 중년 여성들도 포옹 치료를 받기 위해 줄을 섰다. 치료를 시작한 지 1년도 안 돼 제시카는 약 6만 달러를 벌었다.

제시카는 자신의 직업에 대해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하는 일이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돈을 버는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면서 "하지만 저는 사람들의 삶에 변화를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에게 진심으로 위로를 전할 수 있어 너무 뿌듯하다."고 말했다.

www.isemusa.com

# 세금보고 미국 전 지역 서비스

## PREMIER TAX GROUP

- 세금보고
- 법인설립
- 해외자산보고
- 연체세금 해결
- 세무감사대행
- 상속, 증여세금보고



대표 세무사 이세진(Skyler S. Lee)  
공인세무사 (E.A.)  
(전) 한국 삼일회계법인 / PWC 근무

Office 714.530.0030  
714.345.0762

5730 Beach Blvd, Ste. 202 ~ 203, Buena Park, CA 90621  
\*Garden Grove에서 Buena Park로 사무실 이전하였습니다  
info@isemusa.com / taxcapital@gmail.com